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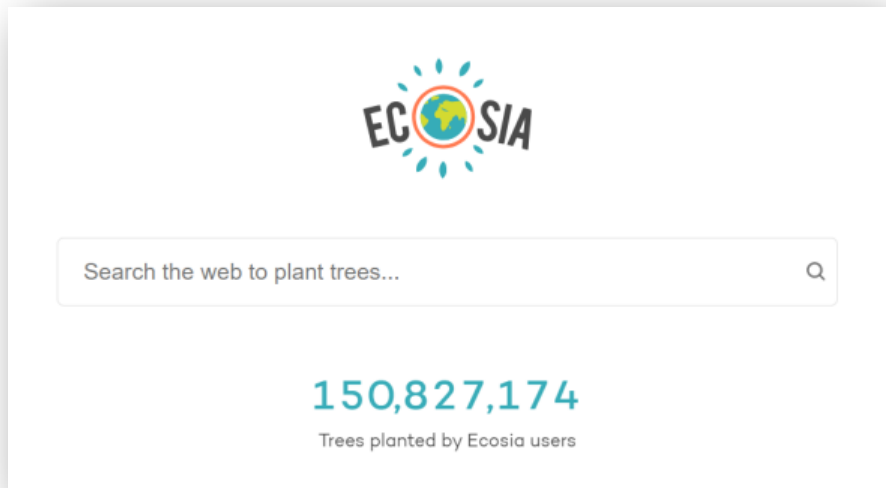
학번 : 3605
이름 : 김은하

Ecosia(에코시아)는 구글이나 네이버 처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이다. Ecosia(에코시아)는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전세계 곳곳에 나무를 심는 "녹색 기업"이며 본사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다. 인터넷 검색 결과는 Microsoft Bing을 기반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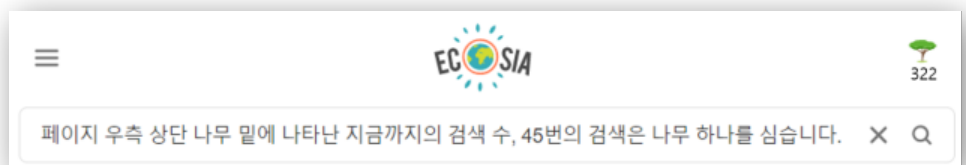
Ecosia(에코시아) 조사 보고서

BUSINESS REPORT

● 나무 심기 프로젝트



위의 사진은 에코시아의 메인 포털 화면이다. 아래의 숫자는 에코시아에서 심은 나무의 수이다. 이 나무들은 모두 검색에 의해 심어졌는데 에코시아는 사람들이 검색할 때 발생하는 광고 수익으로 나무를 심는다. 또, 직접적으로 광고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월별 사용자 수에 따라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 안정적이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데 필요한 돈은 약 22센트(한화 약 280원)이고, 검색 한 회당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약 0.5센트(한화 약 6원)이다. 즉 45번의 검색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된다. 에코시아는 나무 심기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의 커피농가, 인도네시아의 팜 오일 농민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 에코시아는 서버 운영에 필요한 전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태양열 발전소 역시 건설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검색 페이지 상단에 있는 나무 그림 아래에서 지금까지의 검색 수를 바로 볼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는데 기여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에코시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Bing을 기반으로 양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검색엔진이지만 검색 지역을 선택 할 수 있어 한국어로도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검색이 가능했다.

학번 : 3605
이름 : 김은하

Ecosia(에코시아)는 구글이나 네이버 처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이다. Ecosia(에코시아)는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전세계 곳곳에 나무를 심는 "녹색 기업" 이며 본사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다. 인터넷 검색 결과는 Microsoft Bing을 기반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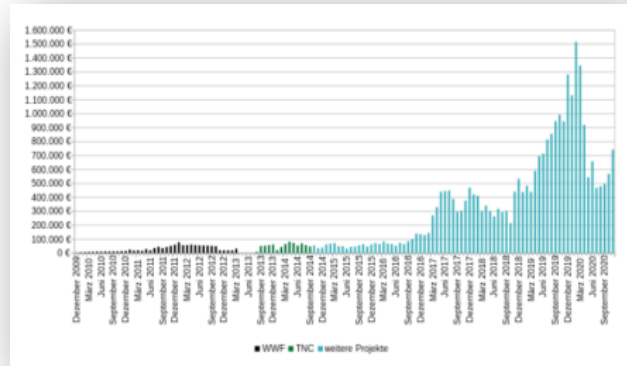
Ecosia(에코시아) 조사 보고서

BUSINESS REPORT

● 회사의 전망



현재 에코시아는 15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검색 엔진이며 1억이 넘는 나무를 태국, 필리핀, 카메룬, 나이지리아 등 전세계 곳곳에 심었다.



옆의 그래프는 회사 설립 이후 2009년 12월부터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사용된 Ecosia의 월별 기부금 그래프이다. 기업 설립 초반과 지금의 기부액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녹색 기업인 에코시아의 전망은 계속해서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용자가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었고 그 영향이 무엇인지 사이트 내 나무 심기 포트폴리오와 에코시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해 상세히 확인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이트 내에서 에코시아의 재무 보고서를 확인 할 수 있다. 재무 보고서는 총 수입과 나무 심기에 얼마가 사용되었고, 녹색 투자로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큰 믿음을 주고, 더 많은 사용자를 불러 들이는 것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에코시아는 2017년 4,911,896유로 이상의 투자유치를 성공시켰고, 2021년에는 애플에서도 에코시아에 지원을 시작했다고 한다. 최근 에코시아는 컴퓨터 검색 엔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로도 출시되어 사용이 더욱 손쉬워졌다. 이를 통해 에코시아 사용의 접근이 용이해졌고, 이는 사용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